

가을입니다. 가을은 무슨 수식어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계절입니다. 무엇을 해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늘 달리는 일만 하는, 그래서 군살이 붙을 겨를이 없는 말도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가을, <출판저널>은 재창간 이후 가장 고통스런 마감행진을 했습니다. 중추절 연휴의 하루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도 데스크의 책상에 올라오는 기사는 가뭄의 콩 구경하기에 가까웠습니다. 기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자란 본시 이틀 이상 쉬면 정상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필자들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잠 한 번 늘어지게 잤으면 좋겠다는게 늘 부르는 노래지만 막상 사나흘을 쉬고 나면 머리 속에서 글줄기가 맴돌기만 할 뿐 정작 글이 되어 나오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출판저널은 마냥 외부 기고자들을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동병상련이지요. 이렇게, 가을은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낳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번 호에서 출판학과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란 '우리가 출판 아카데미즘의 발전에 너무 등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경련이 대학 쪽에 대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요구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을 감안한다면 순간 발상에 뛰어나고, 미래를 내다보는 기획에 어느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출판계가 실상은 키워 놓은 닭 잡아먹기에만 골몰해 왔으며, 그럼으로써 산학産學은 서로 겹돌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이 점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든, 이번 특집의 콘텐츠들을 유심히 보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꽃들에게 희망을'을 노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어떤 꽃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으며, 앞으로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를 물으면 일순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다'라는 대답이 희미하게 뒤따를 뿐입니다. 이런 측면에 기대어 이번 특집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살갑지 않은 얘기까지 고백한 필자들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전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출판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용기를 가지라는 격려를 보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한국출판이 이대로 주저앉거나 퇴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번 특집을 진행하는 가운데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릇,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이 옳은 법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 앞에 '독서의 계절'이란 수식어를 달기는 참으로 진부합니다만, 그래도 책읽기만큼 쓸쓸한 투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화책도 좋고, 그림책도 좋고, 동화책도 좋습니다. 읽고 생각하다 보면 가을이 왜 가을인가, 왜 책을 읽으라고 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0월호를 내보낸 후 저는 기자들에게 만나질쯤의 자유를 줄 생각입니다. 기사와 관계없이 책을 읽으라는 생각에서지요.

가을입니다. 허전한 가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구리에 책 한 권을 끼고 있으면 됩니다.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책은 동력을 일으키는 발전기와 같고, 숲속의 피톤치트와 같습니다.

임동현_ 본지 주간

